

SM 폭등-폭락 “아시아 딜러 장난”

중국특수 기대로 가격 부풀리기 ... 미국 Deep Sea Cargo 4만톤 유입

2004년 1월 FOB Korea 톤당 910달러로 2000년대 들어 최고가를 기록했던 SM(Styrene Monomer)이 1주일 만에 70달러 폭락했다.

1월30일 SM 가격이 FOB Korea 톤당 900달러를 돌파해 수요기업들을 어렵게 했는데, 1월30일 9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중국과 아시아의 일부 딜러들이 구매를 조작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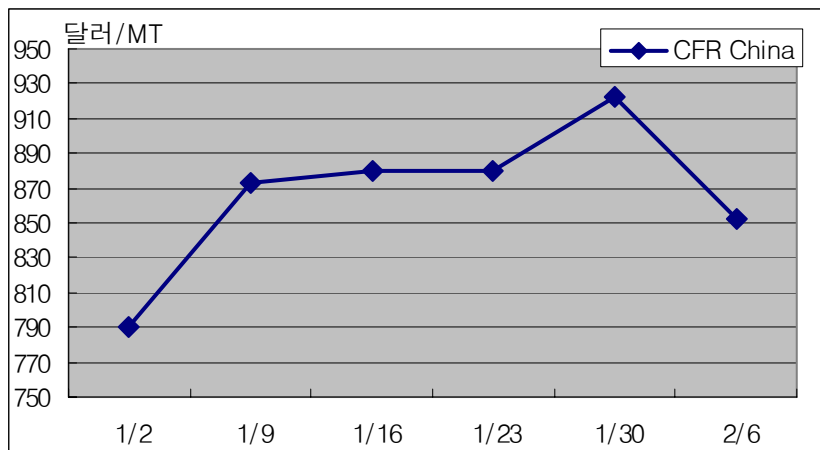
아시아의 일부 딜러들이 중국의 춘절 이후 SM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중국의 춘절로 SM 구매가 없던 시기에 실제 Deal Done된 가격이 아닌 판매의사 가격을 인상시켜 Reporting되는 SM 가격을 일부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SM 시장 관계자는 “일부 딜러들과 무역상들이 전통적으로 중국이 춘절이 끝난 직후 SM을 비롯한 석유화학제품의 구매가 늘어났기 때문에 재고가 부족한 SM을 CFR China 900달러에도 구매할 것으로 예상해 오피 가격을 대폭 인상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SM 구매가 시작된 1월 다섯째 주 SM 구매가 예상보다 적어 2월6일 70달러 폭락함으로써 CFR China 853달러에 거래됐다.

또 미국의 Deep Sea Cargo 4만톤이 2월 중순 아시아에 공급됨에 따라 SM 가격이 폭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SM 가격추이(2004)



SM은 2월 중국과 아시아의 구매가 끝난 것으로 알려져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3월부터 일본 SM 플랜트의 대규모 정기보수가 예정돼 있어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SM 시장 관계자들은 수급이 타이트하면 톤당 1000달러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하락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SM 시장 관계자는 “SM은 가격변동 요인이 있으면 등락폭이 커 정확히 예상할 수 없으나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대규모 정기보수로 수급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M은 Reporting되는 가격에 의해 내수가격도 연동돼 3월에는 수급타이트에 따라 Spot 가격이 1000달러까지 폭등하면 2003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및 PS(Polystyrene) 등 SM 수요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민 조사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13>